Econ Snapshot

Economy | 2026.2.12

Economist 전규연 kychun@hanafn.com

미국 1월 비농업 고용: 예상보다 강했지만 확신은 부족

미국 1월 비농업 고용 Review: 예상보다 강했던 미국 고용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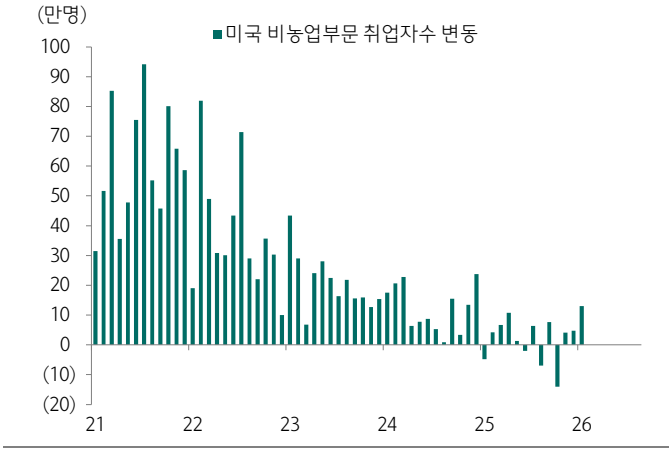
- **미국 1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대비 13만 명 증가**하며 전월치(4.8만 명) 및 예상치(6.5만 명)를 크게 상회
- **업종별 고용은 헬스케어, 사회복지, 건설 부문 위주로 증가.** 헬스케어 고용이 전월보다 8.2만 명 늘어났으며, 사회복지 부문도 개인 및 가족서비스를 중심으로 4.2만 명 증가. 건설 고용은 비주거용 전문건설업을 위주로 3.3만 명 증가. 반면 연방정부 고용은 2025년 트럼프 정부가 시행한 유예 사직 프로그램으로 인해 -3.4만 명 줄어들었으며, 금융업 고용도 -2.2만 명 감소
- **미국 1월 실업률은 4.3%로 전월보다 하락**했으며 예상치(4.4%)보다 낮아짐. 실망실업자와 한계근로자를 포함한 광의실업률(U6)도 8.4% → 8.0%로 하락.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25% 차지. 경제활동참가율은 62.5%로 예상(62.4%)보다 상승했으며, 핵심 경제활동참가율(25-54세)도 상승세
- **미국 1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비 0.4% 상승**하며 예상치(0.3%) 상회. 제조업 임금이 전월비 0.3%, 서비스업 임금은 전월비 0.4% 상승
- 다만 **연례 벤치마크 수정으로 2025년 고용 증가 폭은 58.4만 명에서 18.1만 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.** 이는 지난 해 월평균 신규 고용 증가 폭이 1.5만 명에 그쳤다는 의미. 물론 지난 25년 9월 벤치마크 잠정치 발표로 고용지표 조정은 미리 예고되었던 바지만, 팬데믹 이후 QCEW와 월간 기업 서베이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매월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는 약화

  (BLS는 매년 1월 고용 보고서를 발표할 때 직전 해 3월 말 기준 QCEW 자료를 반영해 비농업부문 고용을 재산정. QCEW(Quarterly Census of Employment and Wages)는 고용주가 제출하는 주 실업보험 프로그램으로, 집계가 느리지만 거의 모든 고용주를 포함하고 있어 전수조사에 가까움. 반면 월간 고용보고서는 약 12만 1천개의 기업 및 정부기관을 상대로 표본 조사를 실시해 통계를 냄)

2026년 미국 고용시장은 저 고용, 저 해고(Low-hiring, Low-firing) 흐름이 이어질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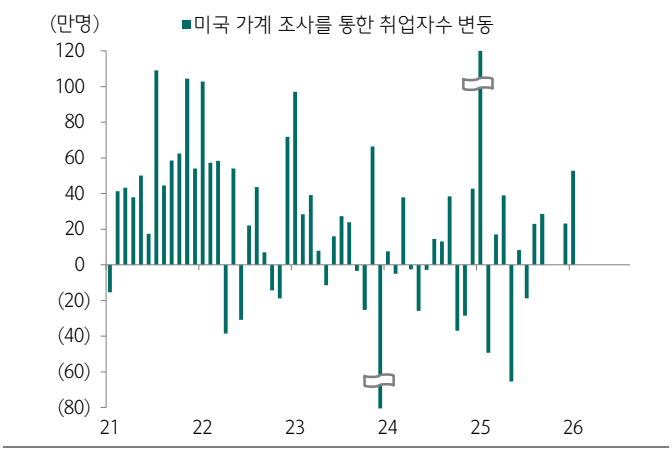
- 예상보다 강한 1월 고용보고서는 올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정도에 대한 고민을 높이는 요인. 하지만 고용 증가가 헬스케어, 사회복지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되어 있고, 금융, 정보, 운수 등 여타 업종들의 고용은 감소 전환하고 있어 고용 둔화 추세를 바꿀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임
- 비농업 고용 증가 폭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전망(24년 평균 12.2만 명 → 25년 상반기 2.7만 명 → 25년 하반기 0.3만 명 → 26년 1월 13만 명). 기업들의 구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노동수급 격차가 마이너스(-)권에 이르렀음(수요<공급). 미국 경제의 K자형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흑인 및 청년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약해질 수 있어 경계감 상존
- 다만 이를 반드시 불황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음.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 공급도 줄어들었기 때문. 이민자가 줄어들면서 완전고용 수준의 신규 고용 BEP도 동반 낮아졌음. 12월 Jolts 해고율은 1.1%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.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며 고용시장의 역동성이 낮아진 만큼, 퇴사 및 이직 수요는 줄어들겠지만, 해고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미국 고용시장은 저 고용, 저 해고(Low-hiring, Low-firing)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
-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선물시장의 6월 금리 인하 기대는 49% → 48.1%, 동결 확률은 24.8% → 41.1%. 금리 인하가 쉽게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 약화. 하나증권은 금년 두 차례(6월, 9월) 금리 인하 경로를 유지

도표 1. 미국 1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대비 13만 명 증가



자료: LSEG, 하나증권

도표 2. 가계 조사를 통한 취업자수는 52.8만 명 증가



자료: LSEG, 하나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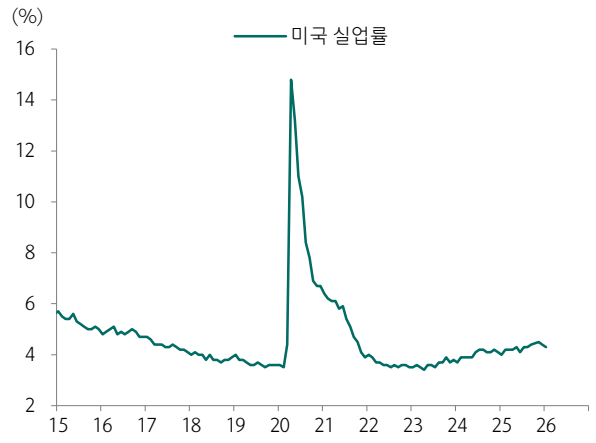
도표 3. 미국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 업종별 증감

(단위: 천명)

	2026-01	2025-12	2025-11	3MA
비농업부문 취업자수 변동	130	48	41	73
민간	172	64	72	103
재화생산	36	-12	25	16
광업	-2	0	-1	-1
건설	33	-4	36	22
제조업	5	-8	-10	-4
서비스업	136	76	47	86
도매업	0	-5	-6	-4
소매업	1	-35	-1	-12
운송	-11	-1	-59	-24
유틸리티	1	1	2	1
정보	-12	-2	-5	-6
금융	-22	-1	1	-7
전문 및 경영서비스	34	15	56	35
교육 및 헬스케어	137	53	56	82
여가/접객	1	45	-12	11
기타	7	6	16	10
정부	-42	-16	-31	-3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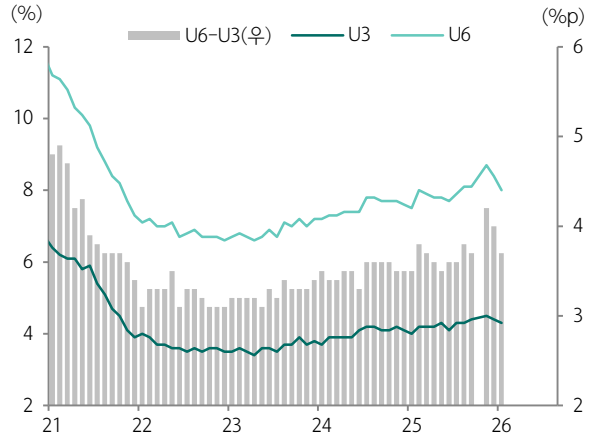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하나증권

도표 4. 미국 1월 실업률은 4.3%로 전월보다 하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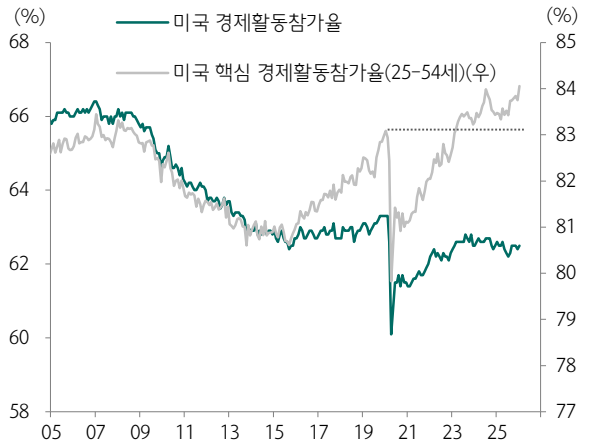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하나증권

도표 5. 광의실업률(U6)은 8.0%로 하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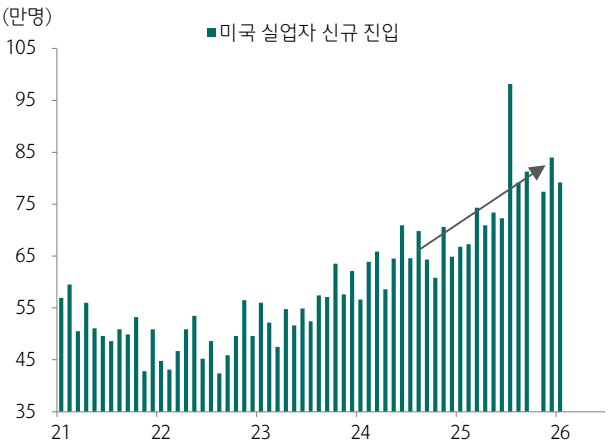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하나증권

도표 6. 미국 핵심 경제활동참가율은 재차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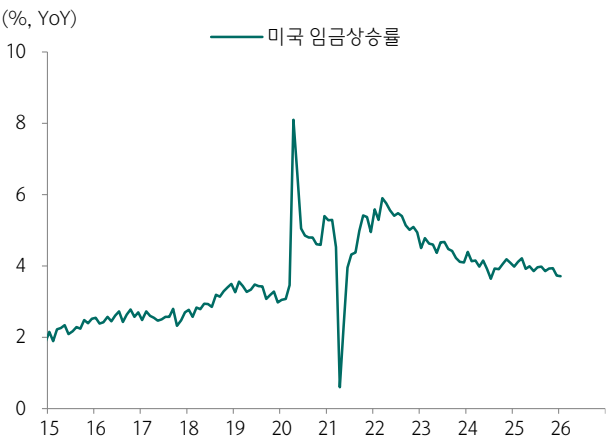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하나증권

도표 7. 미국 실업자 신규 진입 인력 증가세 지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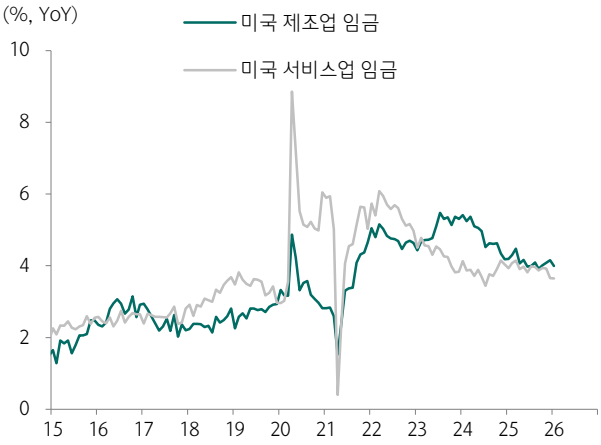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하나증권

도표 8. 미국 1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비 3.7% 기록



자료: LSEG, 하나증권

도표 9. 미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임금 추이



자료: LSEG, 하나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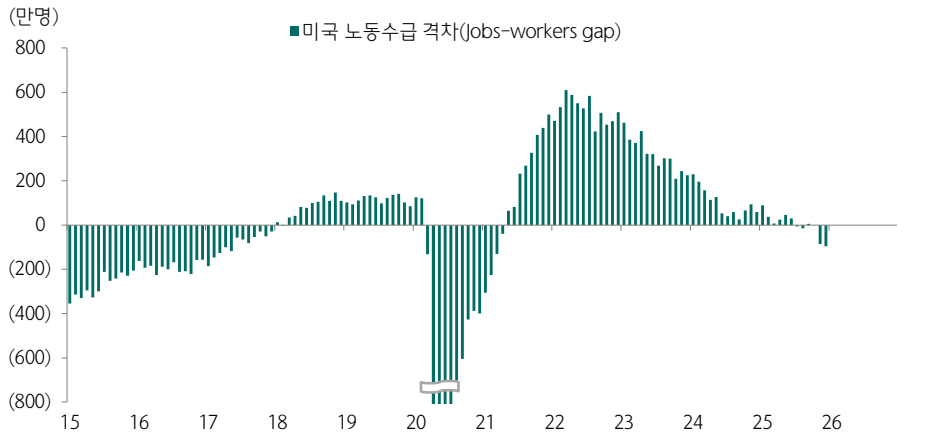
도표 10. 연례 벤치마크 조정으로 2025년 고용은 대폭 축소

Year and month	Level			Over-the-month change		
	As revised	As previously published	Difference	As revised	As previously published	Difference
2025						
January	158,268	159,053	-785	-48	111	-159
February	158,310	159,155	-845	42	102	-60
March	158,377	159,275	-898	67	120	-53
April	158,485	159,433	-948	108	158	-50
May	158,498	159,452	-954	13	19	-6
June	158,478	159,439	-961	-20	-13	-7
July	158,542	159,511	-969	64	72	-8
August	158,472	159,485	-1,013	-70	-26	-44
September	158,548	159,593	-1,045	76	108	-32
October	158,408	159,420	-1,012	-140	-173	33
November	158,449	159,476	-1,027	41	56	-15
December (p)	158,497	159,526	-1,029	48	50	-2

주: 단위는 천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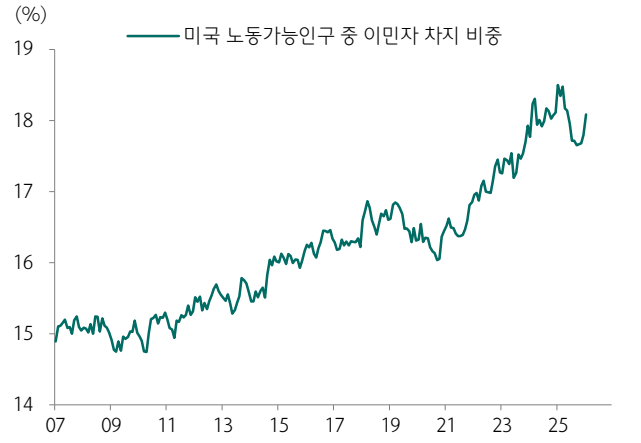
자료: BLS, 하나증권

도표 11. 미국 노동수급 격차는 -96.1만 명으로 마이너스 전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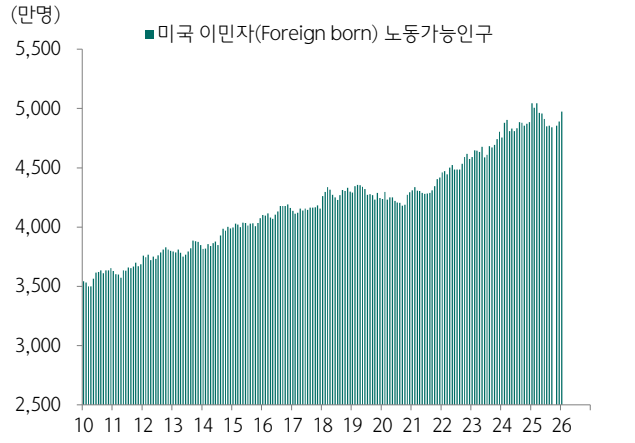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하나증권

도표 12. 미국 노동가능인구 중 이민자 차지 비중 18% 수준



자료: LSEG, 하나증권

도표 13. 반이민정책 영향으로 미국 이민자 노동력은 줄어들어



자료: LSEG, 하나증권

도표 14. 이민자가 줄어들면서 완전고용 수준의 미국 신규 고용 BEP도 낮아져

	순이민 감소 지속 시 잠재 고용 BEP	순이민 감소 후 정체 시 잠재 고용 BEP
2022	120,000 - 200,000	
2023	150,000 - 220,000	
2024	120,000 - 160,000	
2025	90,000 - 120,000	100,000 - 130,000
상반기	170,000 - 200,000	180,000 - 210,000
하반기	20,000 - 50,000	20,000 - 50,000
2026	-20,000 - 20,000	10,000 - 50,000

자료: Brookings, 하나증권

Compliance Notice

-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